

국토정책 Brief

제 300 호
2010. 11. 15

프랑스의 범정부 국토정책 담당조직, DATAR가 새롭게 재출범

김광익 연구위원(국토연구원)

■ 프랑스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취임 후 국토발전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국토균형발전 범정부 조직인 DIACT를 2009년 말부터 초창기 조직의 약자와 동일한 DATAR로 변경해 새로운 이름과 기능을 지닌 기구로 재출범함

- 재출범한 DATAR는 경쟁거점(pôles de compétitivité), 농촌우수거점(pôles d'excellence rurale), 도시재생, 그랑파리(Grand Paris) 등의 지역특화발전이나 도시발전정책 등을 통해 지역매력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국토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
- 반면에 초창기의 DATAR는 강력한 국토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(레지옹) 등에 분산되어 있던 권한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하여 지역적인 활동을 추진하였음

※ 2009년에 재출범한 DATAR의 명칭은 **범부처와 지역매력(l'attractivité régionale)**을 강조하는 조직으로서 **지역활동(l'action régionale)**을 강조한 초창기 DATAR와는 성격이 매우 다름

■ 재출범한 DATAR는 총리 산하 범부처 성격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국토정비 및 발전 범부처 장관회의(CIADT)에서 결정한 국토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처 간 조정 역할을 담당함

- 총리의 권한하에서 국토정비 및 발전에 대한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며, 경제적 경쟁력, 사회적 통합,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국가전략 수립에 참여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
- 재출범한 DATAR는 업무관련성이 가장 높은 농촌공간 및 국토정비부(l'espace rural et de l'aménagement du territoire)에 소속되어 활동하며, 전망·평가연구 및 국제업무국, 범부처활동 조정국, 경제변화국 등 3개 국과 그 산하에 국토조사팀, 국토전망 및 연구팀, 국토진단팀 등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
- 최근 DATAR는 '국토 2040, 변화를 계획한다' 제1권을 출간하였고, 국토재활성화 국가기금(FNRT) 지구를 지정하여 새로운 지역매력 증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

1. 개요

- 최근 프랑스에서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국토정책 강화방침에 따라 국토발전 범정부 조직인 DIACT가 2009년 말부터 초창기 조직의 약자와 동일하지만 정식명칭이 다른 DATAR로 변경되어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재출범함
 - 새로운 DATAR는 **국토정비 및 지역매력 범부처청(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'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'attractivité régionale)**으로 경쟁거점(pôles de compétitivité), 농촌우수거점(pôles d'excellence rurale), 도시재생, 그랑파리(Grand Paris) 등의 지역특화발전이나 도시발전정책 등을 통해 지역매력(Regional attractiveness)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
 - 반면에 초창기 DATAR의 정식명칭은 국토정비 및 지역활동청(délégation à l'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'action régionale)으로 강력한 국토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(레지옹)에 분산되어 있던 조직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활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
 - 따라서 새로운 DATAR는 범부처와 지역매력(l'attractivité régionale)을 강조하는 조직으로서 지역활동(l'action régionale)을 강조한 초창기 DATAR 조직과는 이름과 성격이 다르며, 이러한 DATAR의 변화와 특징을 정리하면 [표 1]과 같음

[표 1] DATAR의 명칭 변화 및 특징

구분	DATAR 탄생기	DIACT 변화기	새로운 DATAR 재출범기
기간	1963년~2005년	2005년~2009년	2009년~현재
정식명칭	délégation à l'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'action régionale	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'aménagement et à la compétitivité des territoires	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'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'attractivité régionale
특징	국토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지역활동(l'action régionale) 의 강화	유럽연합 등 세계화에 대응한 국토경쟁력(la compétitivité des territoires) 강화	지역특화발전 및 도시재생정책 등의 추진을 통한 지역매력(l'attractivité régionale) 증진

- 새로운 DATAR는 총리 산하 범부처 조직으로 국토발전정책에 대한 부처 간 조정 역할이 가장 중요한 임무임

- 소속부서는 업무관련성이 가장 높은 농촌공간 및 국토정비부(l'espace rural et de l'aménagement du territoire)로 DATAR 재출범보다 약간 앞선 2009년 6월에 새롭게 설치되어 그랑파리정책과 농촌발전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음
- DATAR는 우선적으로 국토정비 및 발전 범부처 장관회의(comité interministériel d'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 territoire: CIADT)에서 결정한 국토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함

2. DATAR의 탄생과 그 변화

● DATAR의 탄생(1963년)

- DATAR는 1963년 2월 14일 시행령(n° 63-1120)에 근거하여 국토균형발전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조직을 통합하여 범정부 기구로 탄생함
- 총리는 1960년에 만들어진 국토정비 범부처 장관회의(CIAT)의 창설 이후 국토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, 1963년 DATAR의 창설 이후 그 역할이 강화됨
 - 이후 1972년 총리 산하 부처로 국토정비, 주택 및 관광부(l'aménagement du territoire, logement et tourisme)가 만들어져 DATAR가 이에 속하게 됨

● DATAR에서 DIACT로 변경(2005년)

- DATAR는 프랑스 내 국토정책에서 유럽연합 등의 확대된 국제사회에 대응하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으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 DIACT로 명칭이 변경됨
- DIACT로의 변화는 국토 전체의 경쟁력을 국가 수준에서 담당하여 향상시키고, 경제적으로 잠재력이 우수하지만 저하되기 쉬운 지역은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프랑스 국토 전체가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지니도록 만드는 것이었음
- 이를 위해 DIACT는 범정부 활동으로 기능을 확대되어 국가정책의 방향을 준비하고 정책을 시행하며, 국토의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향상시키는 경제활동으로 변화됨
 - 또한 경제발전을 위한 범부처 추진단(MIME)의 산업재구조화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국토정비 및 경쟁력 범부처 장관회의(DIACT)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수행하게 됨

● 새로운 DATAR로 재출범(2009년)

- 2009년 10월 7일 농촌공간 및 국토정비부 장관은 DIACT를 예전의 약칭인 DATAR로 환원할 것을 제안함
- 2009년 10월 20일에는 그랑파리(Grand Paris) 등 대도시 매력과 경쟁력을 증진시키려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혁 프로젝트를 표방한 사르코지 대통령이 DIACT를 원래 이름인 DATAR로 다시 환원하려는 의견을 피력함

※ 사르코지 대통령의 지역매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

-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편방향은 전 총리인 에드워드 발라뒤르(Edouard Balladur)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지방행정체제 개혁으로 지역매력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
- 이 중에서 그랑파리(Grand Paris)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2010년 6월 3일 **그랑파리 관련법이 제정**되어 동년 7월부터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논의가 시작됨
 - 1) 현재 프랑스 본토에 있는 22개 레지옹(Région)을 약 15개 정도의 레지옹으로 확대 재편하고, 그에 따라 96개의 데파르트망(département: 도)도 조정함
 - 2) 현재의 파리시는 규모가 작아 이를 파리시와 인접한 3개 도를 통합하여 그랑파리(Grand Paris)로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과 매력을 강화함
 - 3) 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Lyon, Lille, Marseille, Bordeaux, Toulouse, Nantes, Nice, Strasbourg, Rouen, Toulon, Rennes 등 11개 지방대도시(métropole)를 주변지역과 통합하여 현재보다 확대된 대도시로 개편해 매력과 경쟁력을 제고함

- 새롭게 명명된 DATAR의 구체적인 의미는 2009년 12월 14일 시행령(n° 2009-1549)에 의하여 제시됨
 - DATAR의 명칭은 출범 초기의 약칭과 동일하나 새로운 단어로 구성되었는데, 이것은 DIACT가 지니고 있던 특성을 유지하면서, 이에 더하여 도시와 농촌 등 지역매력과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새롭게 추가한 것임

3. 2009년에 재출범한 DATAR의 기능

- 2009년 12월 14일 시행령은 새롭게 재출범한 DATAR의 기능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음

국토정비 및 발전에 대한 국가정책 방향 제시

- DATAR는 부여된 책임하에서 국가적 수준에서 부처 간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, 국토조사·연구·전망·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
- DATAR는 국토의 경제적 매력, 결속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, 경제적 변화 환경에서 접근성을 제고하며, 나아가 도시와 농촌공간의 결속력 및 매력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비 프로그램과 실행방안을 준비하여 제시함
- DATAR는 혁신적 국토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현실성 있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시함

경제적 경쟁력, 사회적 통합,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국가전략 수립

- DATAR는 국토의 공간적 균형을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 모든 유용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하고,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범부처 국토정책에 지속적으로 참여함
- DATAR는 경제적, 사회적, 영토적 결속력에 대한 국가 및 유럽 정책의 개념을 확립하여 실행방안을 준비하고, 대도시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심층연구를 수행함
- 국가적 수요가 있는 인프라 및 서비스 설치대책을 국토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하여 제시하고, 국토의 결속력 강화 정책에 대한 재정적, 금융적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함
 - 사무국의 협조를 통해 레지옹 지사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토정비정책 중에서 지역문제 해결에 노력함
 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국토정비 및 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, 계획·계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도움을 주는 한편,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책의 상대적인 평가를 수행함
- DATAR는 국토의 결속력과 경쟁력 및 매력에 관련된 정책분야를 조정하고, 이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, 국가적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국토 창출 측면에서 공공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정책을 조정함

국토발전을 위한 다양한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

- 국토정비 및 발전 범부처 장관회의(CIADT)
- 활동의 지방화 지원 범부처 위원회(CIALA)
- 국토정비 및 발전 국가위원회(CNADT)
- 산지 국가위원회(conseil national de la montagne: CNM)
- 강유역 국가위원회(conseil national du littoral: CNL)

4. 재출범한 DATAR의 조직

- DATAR는 단장 산하에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으로 전망·평가연구 및 국제업무국, 범부처활동 조정국, 경제변화국 등 3개 국과 그 산하에 국토조사팀, 국토전망 및 연구팀, 국제협력팀, 국토진단팀, 지속가능한 발전, 교통 및 대도시팀, 혁신, 경쟁력 및 지표 정비팀, 레지옹 및 유럽정책팀, 발전 및 경제변화팀 등 8개 팀을 구성하고 있는데, 세부담당 업무는 [표 2]와 같음

[그림 1] 재출범한 DATAR의 조직



자료: www.datar.gouv.fr/DATAR/Organismme 에서 정리한 것임.

〔표 2〕 새로운 DATAR의 팀별 세부담당 업무내용

팀 구분	세부담당 업무내용
국토조사팀	• 지도 담당 • 통계 담당 • 연구 담당
국토전망 및 연구팀	• 공간 및 전망의 첨단화 담당 • 검토 및 전망 담당 • 기존 연구검토 담당
국제협력팀	• 중부유럽국가와의 국제협력 담당 • 외국과 협력 프로그램 행정 담당
국토진단팀	• 국토정책 및 농촌개발 담당 • 산악 및 강 담당 • 공공서비스 및 관광 담당 • 문화, 유산, 도시경관 담당 • 국토 역사 담당 • 건강 및 사회적 결속 담당 • 농촌우수거점 담당 • 국지적 개발 담당 • 주거경제 담당
지속가능한 발전, 교통 및 대도시팀	• 교통 담당 • 지속가능한 발전, 환경 및 에너지 담당 • 대도시 담당
혁신, 경쟁력 및 지표 정비팀	• 혁신거점 및 클러스터 담당 • 경쟁거점 담당 • 국토지표 정비 담당
레지옹 및 유럽정책팀	• 국토개발 및 정비 국가기금(FNADT) 관리 • 국토개발 및 정비 범부처위원회(CIADT) 담당 • 국가-지역계획계약(CPER) 담당 • 평가담당 • 혁신의 지역전략 담당 • LEADER 프로그램 담당 • INTERREG / INTERACT, URBAN / URBACT 프로그램 담당 • 유럽구조기금 프로그램 담당 • 평가분석을 통한 지역 및 유럽프로그램 담당 • 기술적 지원에 대한 국가프로그램 담당 • EUROPACT과 협력 담당 • 국토정비장관에 대한 유럽회의의 담당 • 각 레지옹 담당들
발전 및 경제변화팀	• 기업을 위한 국토전략 담당 • 지역개발기구 및 국제투자기구 담당 • 라데팡스 재편 담당 • 경제적 첨단화 담당 • 구조기금의 기술적 지원 담당 • 활동의 지방화 지원 범부처위원회(CIALA) 담당 • 국토계약화 담당 • 국토정책 담당 • 법적 과정 담당 • 유럽연합에 대한 기업지원 환경 및 법률 담당 • 지역개발기구 및 국제투자기구와 협력 담당 • 고용 담당 • 경제분석 담당

자료: www.datar.gouv.fr/DATAR/Organismme에서 정리한 것임.

5. DATAR의 최근 새로운 정책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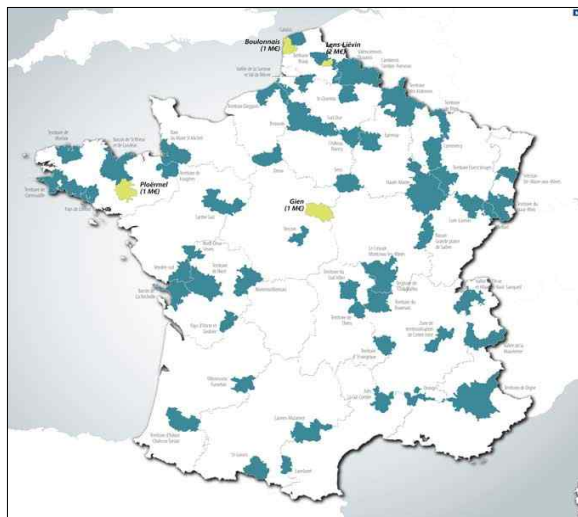
● 미래국토전망 ‘국토 2040’ 연구 추진

- DATAR는 2000년대에 시작한 미래국토전망인 ‘국토 2030’ 연구를 마치고 2009년 6월부터 새로운 미래국토전망인 ‘국토 2040’ 연구를 시작함
 - 2010년 8월 일차적인 연구결과로 제1권 ‘국토 2040, 변화를 계획한다(Territoires 2040, aménager le changement)’를 출간하였는데, 이는 국토 2040의 시작부분에 해당함

● 국토재활성화 국가기금(FNRT) 지구 제도의 도입 시행

- 국토재활성화지구는 2009년 4월에 도입된 제도로 경제적 구조변화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, 국토재활성화 국가기금(FNRT) 집행위원회가 2009년 5월부터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
 - 최근(2010년 9월 14일) 국토재활성화 국가기금(FNRT) 집행위원회(농촌공간 및 국토 정비부 장관, 경제, 산업 및 고용부 장관 공동)는 새로운 고용창출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9개의 신규 국토재활성화지구를 지정함

【그림 2】 국토재활성화 국가기금(FNRT) 지구



주: 2010년 9월 14일 현재 기준이며 청색은 2009년 5월 ~2010년 8월 지정지구, 초록색은 9월 지정지구임.
자료: www.datar.gouv.fr/DATAR에서 인용.

● 국토연구원 국토계획·지역연구본부 김광익 연구위원 (kikim@krihs.re.kr, 031-380-0197)